

성인 미세변화신증후군 환자에서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의 효과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이영기, 조성태, 전노원, 김성균, 오국환, 윤종우, 구자룡, 김근호, 김형직, 노정우

목적: 미세변화신증후군은 소아에서 호발하지만, 국내에서는 성인에서도 많이 발생한다.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약 50% 정도에서 재발하며, 성인에서는 소아보다 관해율이 낮고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고용량의 methylprednisolone을 정맥 주사하는 방법은 조기에 관해를 가져오지만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재발과 합병증 발생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어, 미세변화신증후군의 치료는 대개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다. 그러나 methylprednisolone의 투여 대상이 주로 소아 환자들이었으며, 성인 미세변화신증후군에서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. 저자들은 성인 미세변화신증후군 환자의 초치료로서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(MP)와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(PD)를 비교하였다.

방법: 1993년부터 본원 내과에 입원하여 임상 검사 및 신생검을 통해 미세변화신증후군을 처음 진단받은 16세 이상의 성인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MP군(12명)은 1g의 methylprednisolone을 3일간 주사한 후 하루에 prednisolone 60mg을 4-8주간 투여하여 관해를 유도하였고, PD군(10명)은 prednisolone 일일 60mg을 4-8주간 투여하여 완전관해가 유도되도록 하였다.

결과: MP군과 PD군의 연령 및 성별, 미세혈뇨 및 고혈압의 빈도, 치료전 혈중 크레아티닌, 알부민, 콜레스테롤, 24시간 요단백량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MP군은 완전관해가 10명(83.3%), 무반응이 2명(16.7%)이었고, PD군은 완전관해가 8명(80%), 부분관해 1명(10%), 무반응 1명(10%)이었다. 또 8주 이내에 관해에 도달한 경우는 MP군이 7명(70%), PD군이 6명(75%)이었으며, 관해에 이르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각각 37.9 ± 28.0 일, 50.8 ± 43.2 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재발율에 있어서 MP군에서는 40.0%, PD군에서는 44.4%로 비슷하였고, 투약기간중 약제에 대한 부작용도 차이가 없었다.

결론: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는 성인 미세변화신증후군 환자의 초치료로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.